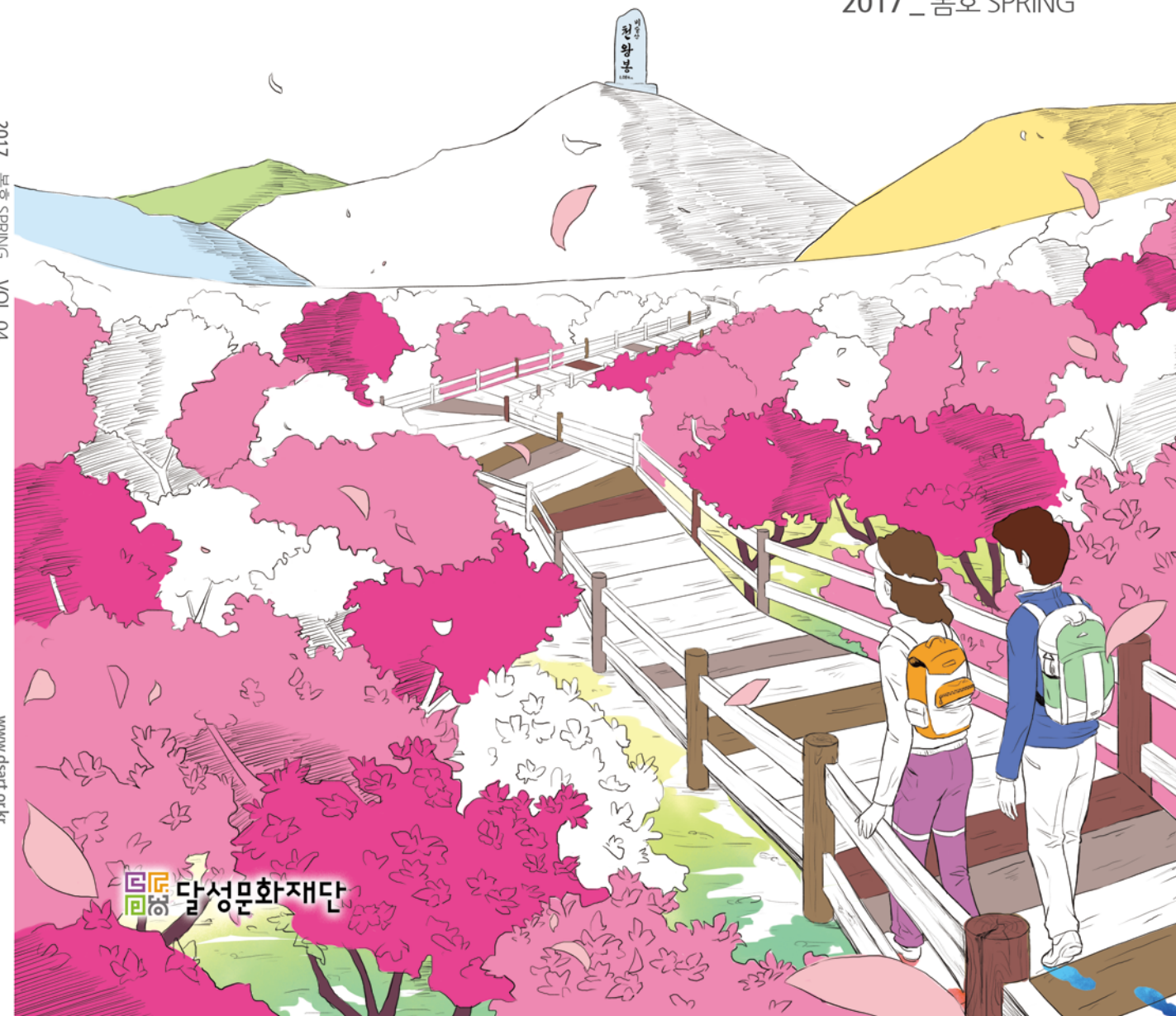


달성문화재단 계간지

꽃밭에서

2017 _ 봄호 SPRING





아내, 엄마로 살아가는
이 시대 여성을 위한 콘서트!

드레스 콘서트

DRESS CONCERT

나 데이트 하러 간다



진행 | 배우 차광수

일 시 2017. 5. 26 (금) 11:00 / 14:00

장 소 달성문화센터 5층 백년홀

드레스코드 "옷장 속 가장 돋보이는 옷"

•

•

현풍 석빙고



현풍 석빙고는 1980년 보물 제673호로 지정되었다. 남북으로 길게 축조되어 있으며, 출입구가 개울을 등진 능선 쪽에 마련된 남향구조이다. 돌의 재질은 모두 화강암으로 외부에서 보면 고분처럼 보인다. 입구는 길쭉한 돌을 다듬어 사각의 문틀을 만든 후 외부공기를 막기 위해 돌로 뒷벽을 채웠다. 외부는 돌을 쌓고 점토로 다져서 흙을 쌓아 올렸다. 잘 다듬어진 돌로 벽과 천장을 쌓았는데 천장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4개 틀어 올리고 그 사이사이에 길고 큰 돌을 얹어 아치형을 이루게 하였다. 천장에는 통풍을 위한 환기구가 두 군데 설치되었고 빗물에 대비한 뚜껑이 있다. 바닥은 평평한 돌을 깔고 중앙에 배수구를 두었다.

당시에는 얼음창고가 마을마다 설치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현풍고을에 이러한 석빙고가 만들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1982년 석빙고 주위의 보수작업 때 축조년대를 알려주는 건성비(建城碑)가 발견됨으로써 조선 영조 6년(1730)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참조 : 문화재청

•

•

「달성의 봄

“보기에는 잠자듯 게으른 봄이 / 이제는 눈부시어 다가 온다”는 W.C 윌리엄스 시귀가 생각나는 달성의 봄이다. 다가올 여름을 향해 질주하는 달성의 봄은 그래서 더 눈부시고 아름답다. 지천을 이루며 천상의 화원으로 찬탄 받았던 비슬산 참꽃, 두텁게 짙은 도동서원의 목단 꽃, 흐드러졌던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의 넉넉했던 꽃더미 등, 달성의 자랑거리인 이런 꽃들이 있기에 달성은 여전히 ‘꽃피고’ 있다.

꽃 피는 그 봄 속에는 빠뜨릴 수 없는 문화의 향기가 있다. 원시적이고 싫어하는 것이 문화의 병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졸속적인 웅성이나 소통이나 화합 탓이다. 문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존속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질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를 운명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문화에 진리와 오류가 범벅이 돼도 좋고, 아니면 아주 희귀하게도 완벽을 지향하며 피는 꽃처럼 혼신을 다해도 좋다는 견해를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선택해야 마땅한가. 결코 쉽지 않는 물음이다.

차라리 이런 하나마나 한 물음에 매달림을 집어 치우고 달성의 서원들을 보면서 조선의 선비들이 지녔던 사려 깊은 안목과 검소한 생활에서 우리나라 문식과 아취를 생각해본다. 마비정벽화마을에서는 향수를 흠뻑 들이키고 최근 대박을 내고 있는 송해공원에서는 힐링을 잠재력으로 한 창의적 문화콘텐츠로 값진 나만의 결실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면 됐다. 희귀하게 심오한 것에도 문

화는 숨 쉬지만 통속적이듯 무리지어 따르는 대중화에도 문화의 숨결은 힘차다. 이를 관광이라고 한다면 달성의 봄은 관광이다.

혹 달성습지를 가보았는가? 늘 유장하며 어머니의 젖줄 같은 낙동강을 끼고 발달된 달성습지에는 자전거 길이 잘 닦여 있다. 주말이면 그 길을 따라 부산까지 젊은 바이커들의 행렬이 하늘의 철새행렬과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게 해준다. 바이커들은 안동, 상주, 구미를 지나왔지만 디아크가 있는 강정보를 비롯 달성보를 지날 때 제대로의 낙동강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의 가운데에는 달성습지의 완전한 생태가 한 몫을 한다. 습지가 주는 잠재력, 무진장 보물 같은 습지. 습지에도 봄이 있고 문화가 있음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사람들은 대개 인간의 가치를 두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결국은 문화의 가치로 결론내기 십상이다. 함석헌 선생도 “문화 창조의 힘이 강하기만 하면 한 때 정치의 잘못된 것은 회복할 수 있다”고 ‘생활에서 나타난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글에서 밝혔다. 문화의 힘은 비단 정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나 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젠가는 치유와 재생 할 수 있는 힘이 됨을 이룬 말이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다.

달성에는 그런 잠재력이 엄청 많다. 저의 문화재단도 그 잠재력에 늘 일 맛을 느낀다. ‘달성 꽃피다’라는 슬로건이 어찌 피는 꽃에 머물 것인가. 지혜로운 선조들은 꽃의 꽃핍에 머물지 않고 원기왕성하고 한창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나 때를 가리켜 ‘꽃피다’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웠다. 달성은 지금 꽃피고 있다. 문화에서도 예외없이 피는 달성의 봄이다.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곽원영

CONTENTS ●

2017 SPRING Vol. 04

07 Column

꽤나 이로운 도시, 대구
_ 대구문화 편집장 임언미

08 피플 I

유하게 흐르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100대 피아노
_ 지휘자 · 음악감독 금난새

10 피플 II

강정에 떠오른 예술 빛
_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예술감독 안미희

12 건축

정교하게 지어, 반듯하게 가꾸는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14 음악

“소중하고 잊지 못할 순간” 2017 스페인 마드리드 독창회
_ 계명문화대학교 생활음악학부 교수,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16 아웃사이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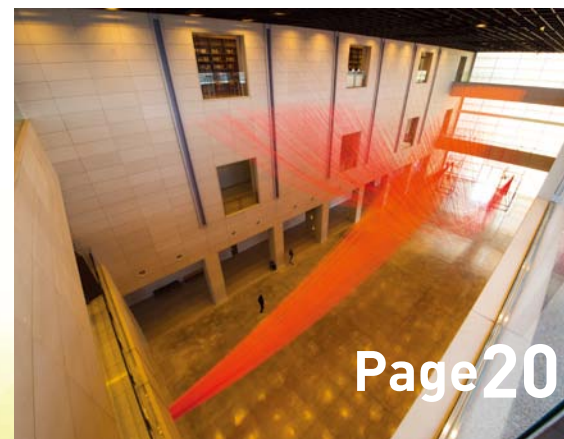
예술 창작의 무한동력 _ 대구예술발전소

20 아웃사이드 II

보통의 일상에 미술을 입히다 푸른색 여유의 미학을 만나다
_ 대구미술관

24 자매도시

달성의 자매도시 담양스케치
_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이나영





꽤나 이로운 도시, 대구

글 임언미(대구문화 편집장)

서울에서 발간되는 한 여성지 3월호에 '뜨거운 대구'라는 타이틀로 대구에 대한 기획 기사가 실렸다. 여성지이니만큼 주된 내용은 대구의 여성과 패션, 트렌디한 카페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졌지만, 이 잡지 에디터는 대구를 미식과 예술, 쇼핑 등을 아우르는 문화 도시로 정의했다. 잡지에 등장한 패션모델들의 사진 촬영 장소는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 골목'이었다. 여러 기사 중 대구의 여러 문화시설들을 언급하며 '예술가들에게 대구는 꽤나 이로운 도시이다.'라는 표현도 눈에 확 들어왔다. 잡지 발간을 준비할 때 담당 에디터와 몇 차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다. 대구에서 문화잡지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타 지역 잡지 편집자의 눈에 비친 대구의 모습이 밝고 희망적이라는 점이 반갑고 고마웠다.

에디터는 최근 세계 화단을 뜨겁게 하고 있는 '한국 의 단색화 열풍'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의 밑거름이 된 '현대미술제'가 1970년대에 대구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필자에게 듣고 깜짝 놀랐다. 그에게 팀으로 대구현대미술제가 열렸던 역사적 장소에서 매년 여름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한국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온 사문진 나루터에서 '달성 100대 피아노'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에디터도 알고 있었고 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지 기획 기사의 예로 글을 시작했지만, 대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밝아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다는 '김광석길'과 '근대골목', 그리고 지난해 10주년 행사를 멋지게 치러낸 대구국제뮤지컬축제, 올해 가을 15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국제오페라축

제, 10주년을 넘어선 대구사진비엔날레 등 탄탄한 문화 인프라를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대구다. 지난해 대구 중구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문화재 대구야행(夜行)'이 전국적인 호평을 받은 것도 우리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소중히 갖고 닦은 덕분이다.

더불어 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문화 기획자들의 움직임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제는 대구를 대표하는 청년 문화 기업(?)으로까지도 불리는 '인디053'은 매년 청년 기획자들을 뽑아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북성로에 터를 잡은 독립출판서점 '더 풀락'은 전국 독립 출판인들의 발걸음을 대구로 불러 모으고 있다. 수많은 독립 영화인들의 오랜 염원 끝에 탄생한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은 독립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숨통과 같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일 년간 맘 흘러 가곤 버를 탈곡해 수제 막걸리로 탄생시킨 북성로 허브는 도시 농업,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새로운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공연 기획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누군가가 현대는 플랫폼 시대에서 콘텐츠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뭐든 잘할 수 있다는 무모함이 아니라 자신이 잘 하는 분야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다. 지난 시간들 속 수많은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서울처럼, '어느 곳'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고 뜻을 모아왔다. 어느덧 우리는 그간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뿌려놓은 꽃씨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이곳 대구가 '문화적으로 꽤 이로운 도시'라는 자랑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28 달성인 세계속으로 I

나는 이방인이기에 자유로웠다
_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곽원영

32 달성인 세계속으로 II

쿠바, 몰락의 낭만 속에서 배우다
_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박현주

36 달성인 세계속으로 III

삿포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인간과 인간이 만나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
_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이나영

42 달성인 세계속으로 IV

과거의 향수를 동경하는 나그네를 위한
오사카 시립 주택박물관, 오사카 역사박물관
_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이나영

46 인문학 총서 프리뷰

달성의 독립운동가 _ 권대웅
100년 달성, 달성 100년 _ 김대식
달성의 누와 정(누각과 정자) _ 김봉규
왕선고개 _ 류영철
도동서원 _ 이수환

48 정보

따뜻한 분홍빛을 머금은 참꽃

50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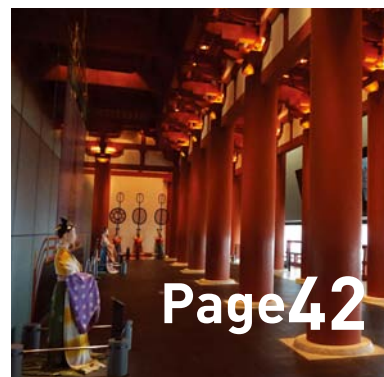
현풍향교 춘계 석전대제

달성문화재단 DALSEONG CULTURAL FOUNDATION

발행인 | 김문오 달성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김채한
기획/편집 | 감성수, 최영윤, 곽원영, 김상욱, 박현주, 이나영, 장인규, 이시영
발행월 | 2017년 5월
발행처 | 달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전 화 | 053)715-1273
팩 스 | 053)715-1289
홈페이지 | www.dsart.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60-6600

ISSN 2508-3740
2017년 VOL.4 비매품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하게 흐르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100대 피아노

지휘자 · 음악감독 **금난새**

웅장함에 웅장함을 더한다.

올해 <달성 100대 피아노>의 중심에 서게 될 금난새 음악감독을 만났다.

가장 바쁜 지휘자

성남시향 지휘자 겸 예술총감독인 ‘금난새’ 음악감독은 다른 수식어를 포함하지 않아도 이름 그대로 묵직한 무게감을 전한다. 1년에 약 150회의 공연을 이끌며 ‘가장 바쁜 지휘자’로 알려진 그는 1998년에 탄생한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前 유로아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제주 뮤직아일랜드 페스티벌’로 기업과 예술을 연결하고 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이자 대구 경북예술고등학교의 명예 교장으로 1년에 한 번씩 대구의 학생들과 만나 공연을 가진다.

“새로운 도전을 좋아합니다. 제주에서 12년간 대중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실내악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실내악이라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전체 음악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지요. 야외 공연도 틈틈이 해왔는데요, 올해 음악감독을 맡게 된 달성 100대 피아노 또한 제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입니다.”

웅장함이 맞추는 합

금 감독이 지휘하는 ‘달성 100대 피아노’에는 오케스트라가 등장할 예정이다. 피아노의 ‘타악기’적인 요소를 오케스트라가 받쳐줌으로써 새로운 소리를 만들게 된다. “잘 훈련된 50인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피아노를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자는 전체 3부류로 나누게 될 텐데요, 피아노를 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적인 연주자도 동참할 수 있겠지요. 무대를 중심으로 왼쪽에서 혹은 오른쪽에서 연주하거나, 다 같이 연주하는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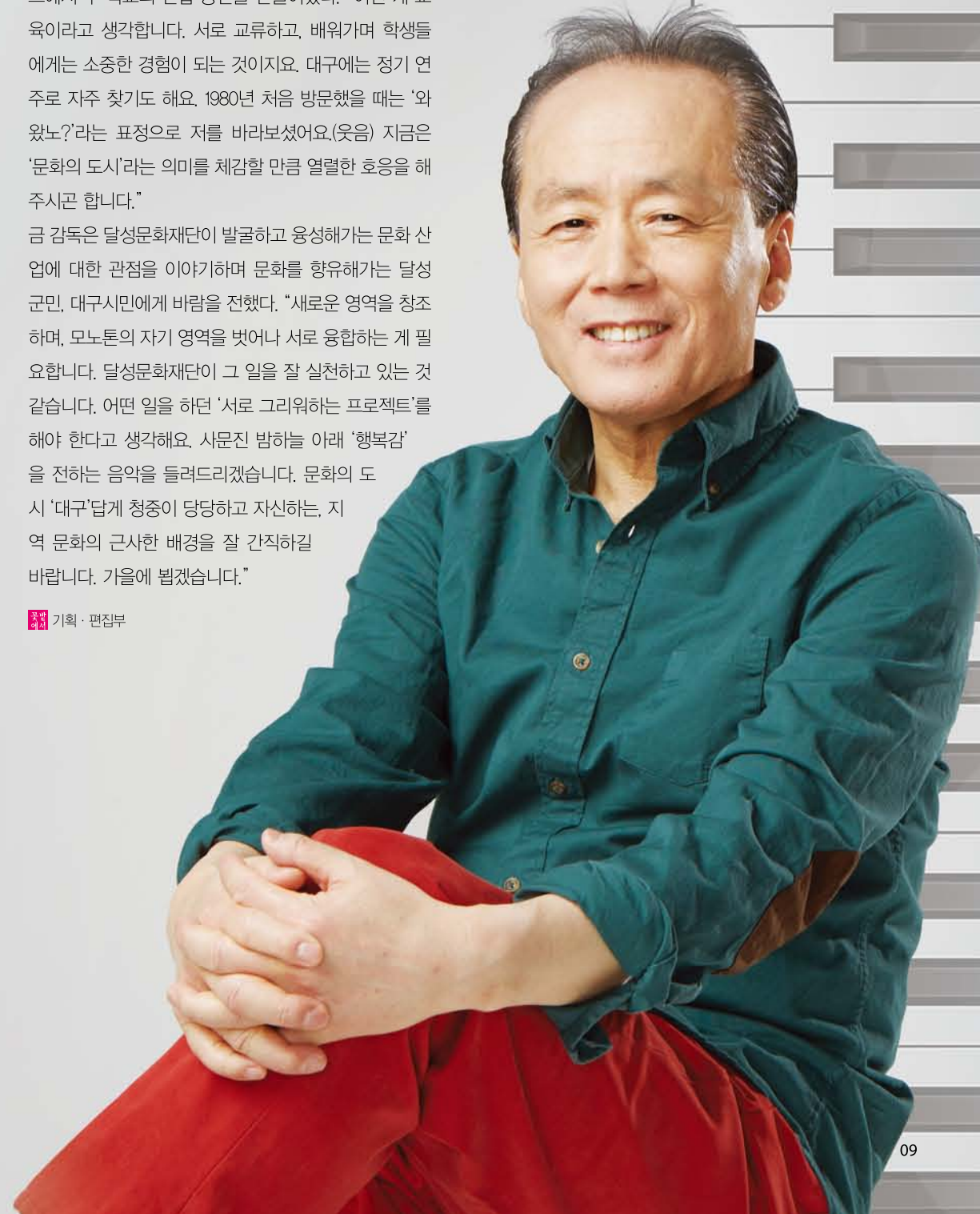
이전 달성 100대 피아노와는 완전히 달라진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금 감독. 올 가을 청중을 매료시킬만한 콘텐츠나 무대 장치는 무엇일까. “공연 이야기보따리를 한 아름 풀어놓는다면 좋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연을 찾자 하는 이들의 기대나 설렘을 감소시킬 수도 있겠지요(웃음) 오케스트라 공연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청중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서로가 그리워하는 공연

그는 10년 전 경북예술고등학교의 명예 교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경북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만남을 성사시켜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두 학교의 연합 공연을 만들어냈다. “이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교류하고, 배워가며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대구에는 정기 연주회 자주 찾기도 해요. 1980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와 왔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웃음) 지금은 ‘문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체감할 만큼 열렬한 호응을 해주시곤 합니다.”

금 감독은 달성문화재단이 발굴하고 육성해가는 문화 산업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며 문화를 향유해가는 달성군민, 대구시민에게 바람을 전했다.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며, 모노톤의 자기 영역을 벗어나 서로 융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이 그 일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서로 그리워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문진 밤하늘 아래 ‘행복감’을 전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도시 ‘대구’답게 청중이 당당하고 자신하는, 지역 문화의 근사한 배경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가을에 뵙겠습니다.”

문예 기획 · 편집부



강정에 떠오른 예술 빛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예술감독 안미희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준비가 한창이다.

올 여름 강정에 놓이게 될 현대미술은

또 어떤 감정을 전달해줄까.

이번 미술제 총괄을 맡은 안미희 예술감독을 만났다.

새로운
시선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가 열린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미술제는 지난 10년간 광주비엔날레를 이끌었던 안미희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았다. 안 감독은 경북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뉴욕으로 건너가 현대미술사와 미술관학에 대한 공부를 마쳤다. 뉴욕에서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던 중 2005년 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으로 발탁돼 총 4회의 광주비엔날레 전시 실행을 총괄했다.

다시
향해하는
강정

안 감독은 주로 광주와 서울에서 활동하며 늘 고향인 대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다고 한다. "저는 '대구현대미술제'가 가진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체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미술 공부를 해왔습니다. 달성문화재단으로부터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예술감독 제안을 받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감독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강정, 미래의 기록〉이다. "이미 다섯 번이 진행된 미술제에 새로운 시작을 고하는 것이 다소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미술제에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5년의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 '변화'와 '확장'의 메시지로 풀어어나가는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는 앞으로 진행될 미술제에 있어 중요한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미술제와 새롭게 향해를 준비하는 '미래의 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대부분의 야외 미술제는 '시각적 조형성' 표현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올해 미술제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미술의 동시대성과 예술의 확장성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안 감독은 또한 공공성이라는 태생적 가치를 지닌 야외 공간 전시의 근본적인 이유를 되새기고, 예술이 인간의 삶에 '침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일상 속 영감을 줄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올해 미술제 공간 설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동시대
미술이
주는 감정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에서는 현대건축과 시각디자인의 콜라베이션 작품이 놓일 예정이다. 시각적 완성도를 가지면서 장르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들을 접목한 국내외 작가들이 미술제에 대거 참여한다. 안 감독은 작가가 전시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 존재한다며, 미술제를 보며 일상의 기분 좋은 자극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공공성'의 실현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이 현대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예술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교감하며,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예술은 언제나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2017년 7월, 달성군민과 대구시민의 일상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확장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기획·편집부

정교하게 지어, 반듯하게 가꾸는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남평문씨 본리세거지는 옛 인흥사 절터에 형성된 민속마을이다. 이곳은 1995년 5월 12일 대구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됐다. 11,801㎡(3,546평) 규모의 이 마을은 남평문씨(南平文氏)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인흥사는 삼국유사 저자 일연스님이 1264년 포항 오어사에서 옮겨와 중창한 사찰이다. 이 절은 임진왜란 때 전부 소실됐다. 절이 있던 명당에 남평문씨 일족이 들어온 후 정전법(井田法)에 따라 구획을 정리하고 터전과 도로를 반듯하게 열어 집을 짓고 세거했다.

1715년 남평문씨인 문재철(文在徹)이 이곳에 들어와 정착했으며, 문익점의 18대손 문경호가 19세기 중반 지금의 광거당 자리에 용호재를 건립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10~1940년경 남평문씨 일가 살림집과 재실 등이 생기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 지금은 조선시대 말에 지은 아홉 채의 전통 한옥과 정자 두 채 등 전체 11호 54동의 건물이 있다.



동네 안쪽으로 들어서면 반듯한 흙돌담길이 사람들을 반긴다. 주거지 도로 정면에 나지막이 담을 쌓았으며,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도로망도 편리하게 정리되어 있다. 잘 정돈된 흙돌담 위로 푸른 담쟁이덩굴이 적당히 올라와 운치를 더한다. 여름철 주황빛 꽃송이를 피우는 능소화 또한 담을 넘어 활짝 피어나 땅 위로 꽃을 떨군다.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가 100년 타워 뿌리 광장과 함께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에서 촬영되면서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이 마을의 대표 건물은 목조건물의 독특한 조형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수봉정사와 광거당이다. 마을 전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수봉정사'는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일족이 모임을 갖던 곳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생산된 춘양목을 활용해 민족의 정신을 간직하고자 비교적 큰 규모로 지어졌다.

'광거당'은 자제들의 학문과 교양을 쌓던 수학의 장소였다. 1873년 후은공(後隱公)과 문성공(文成公)이 중국 서적 수 천 권을 수집해 세웠다고 한다. 또한 세거지 내 수봉정사 옆에 자리한 인수문고는 문중의 서고다. 질적·양적인 면에서 그 유례가 드문 문고이며 국내외 2만여 권의 서책과 책판이 거의 변질 없이 보관되어 있다.

본 세거지는 20세기 초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근대화를 지향했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기존 전통마을의 풍수지리적 정서와 민속적인 풍습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배산향천(背山向川)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마을이 평지에 자리 잡은 탓에 농경생활을 근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또한 주거유형들은 대부분 평면상 '一자형'이고 그 배치는 '튼 ㄴ자', '튼 ㄷ자', '튼 굽자'와 '二字형' 배치가 나타나며,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가구법이자 도리(道里)가 세 줄로 걸린 가구구조 3량집이 주를 이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남평문씨 본리세거지는 마을의 조성시기와 규모, 형태면에서 기존의 민속마을과 차이가 있고, 문중의 정신적 유산을 담은 전통 건축의 정형성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주거공간의 근대적 변용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 기획·편집부



“소중하고 잊지 못할 순간”

2017 스페인 마드리드 독창회



2017년 1월 26일 스페인 마드리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3년 만에 외국에서 가지는 독창회를 위한 여행은 언제나 설렘과 함께 부담감을 안고 출발한다.



이번 독창회는 은사이신 Giovanna di Rocco 선생님
의 주선으로 마드리드에서 활동하는 Musicolania 음
악협회에서 연주 장소 등 모든 기획을 맡아 주었고,
특별히 협회 소속 합창단 30명이 함께 참가하게 되어
그 어느 때 보다는 풍성한 독창회를 준비했다. 프로그
램은 벨리니, 토스티 등의 이태리 가곡과 한국가곡인
'고향의 노래'와 '신아리랑'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로는
비제의 카르멘과 함께 로시니, 생상의 대표곡들로 구
성하였다. 특별히 6개월 전에 현지 성악가에게 부탁하
여 스페인 정통 민요를 받아 레퍼토리로 선곡했다. 스
페인 민요로는 'Tango de menegilda(하녀의 탱고)'와
'El vito(비토 춤)' 두 곡인데 가사가 몹시 복잡한 곡에
다가 스페인어이기에 암기하느라 무척 힘이 들었다.
하지만 멜로디와 리듬이 경쾌하고 매력적이라 그 노
래에 푹 빠져서 연습을 시작했다.
2월 1일 수요일 저녁에 「Centro Cultural Alfredo Kraus
(알프레도 크라우스 연주홀)」에서 리허설을 가졌다. 이
연주홀은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인 알프레도 크
라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홀이다. 그는 절묘하게
조율된 우아한 창법을 소유한 스페인의 보석 같은 테
너로 4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욱 뛰어난 노
래를 들려준 희귀한 가수였다. 한 성악가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홀에서 독창회를 가진다는 것은 성악가
로서 매우 뜻 깊고도 감사한 일이었다. 합창단과의 첫
만남은 구성원의 연령대가 다양하네 놀랐고, 무엇보다
아마추어로서 자긍심과 함께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
고 즐기는 분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스페인
에도 한류 드라마의 인기로 인하여 나에게 “안녕하세
요!”라고 인사하는 단원들도 있었다.
2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독창회 당일 나는 분장실에
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객석에는 나의 은사님과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마음이 초
조하고 염려도 되었다.
공연 10분 전, 갑자기
공연장 출입문이 열리
더니 관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
리나라 공연장과는 다
르게 공연 10분 전에 관
객 입장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무대에 오르니 객석은
관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가득 찼고, 특별히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에서 박희권 대사님과 함께 대사
관 관계자들께서 참석해 주셨다.

노래는 온 몸이 악기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내 삶과 나의 철학이 이 무대에서 고스란히 관객
에게 전달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스페인 관객들의 반
응은 뜨겁고도 열정적이었다. 특별히 동양여자가 부르
는 스페인 민요와 플라멩코 춤에 환호성을 보내왔다.
앵콜곡으로 합창단과 관객들이 함께 부른 'El vito' 때
는 합창단의 82세 할머니께서 멋진 플라멩코 춤사위
로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참석하신 박희권 스페인 주재 대사님
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간 문화외교입니다.”라고
찬사를 보내며, 저녁 만찬에 초대해 주셨다. 언어가 다
르고, 모습이 다르며, 문화가 달라도 음악 안에서 하나
가 된 소중한 순간이었다. 난 무대 위에
서 내가 살아있음과 함께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 앞
으로도 내게 주신 귀한 재능을 잘 관리하고 더욱 노력
하여 관객들과 행복한 이 순간이 계속되도록 오늘도
내 마음과 목소리를 가다듬어 본다.

계명문화대학교 생활음악학부 교수,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예술 창작의 무한동력 대구예술발전소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파블로 피카소)’

지역 예술의 고귀한 정신을 담으며
예술가들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대구예술발전소를 찾았다.



근대의 흔적

대구예술발전소는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장소다. 시민과 예술가가 소통할 수 있는 전시·공연 공간, 다양한 예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실험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창작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대구연초제조창 별관을 예술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복합문화 공간이다. 1909년 탄생한 남한연초주식회사에서 1923년 우리나라 첫 담배 제조창을 조성했다.

1999년 주요 시설이 이전되면서 건물이 폐쇄될 때까지 대구 근대 시기와 건축물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보여주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근대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사례가 늘어나며, 이를 문화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있는 대구연초제조창 별관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 재생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이후 2007년 6월 KT&G가 대구시에 이 건물을 기부 채납하여 '대구문화 창조 발전소 조성' 사업이 가시화됐다.

예술 공간으로 재구성

대구시에서 운영해온 대구예술발전소는 2016년 7월부터 대구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 대구문화재단은 '동아시아 창작 실험예술의 중심',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등 대구예술발전소의 성장 계획을 세우며, <청년예술가 발굴·육성의 거점 공간 마련>, <다양한 장르의 예술창작 실험 지원>, <글로벌 문화예술공간의 네트워크 확장>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4일 초대 소장으로 부임한 남인숙 소장은 "대구예술발전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널리 알리며 시민과 예술가, 전문가 등 모두가 즐겁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것이 곧 가장 대중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최고의 도전 공간이 되고, 청소년·중장년에게는 자신들의 호기심과 노후를 예술 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연금술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라며 대구예술발전소의 계획을 소개했다.



발전소 기동 요소

대구예술발전소 1층과 2층에 있는 전시실은 설치, 회화, 조각, 영상 등 유동적인 전시 구성이 가능한 공간이다. 3층 예술정보실에는 대구의 근현대 문화예술 정보와 아카이브 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홍보전시실>과 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4, 5층의 <스튜디오>에서는 입주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간다. 그밖에 1층 강의실, 3층 회의실, 세미나실, 수창홀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단체에 대관을 하곤 한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입주 작가 지원제도'로 젊은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스튜디오를 매체 활용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고,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게 만드는 지역 청년예술가 양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입주 작가가 결정된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작가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전시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접목 형태의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구예술발전소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4층에 있다. 4층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달벽화'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기록을 남긴다. 또한 2층 만권당을 찾는 이들도 많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대구시 달성군 화원을 인흥리에 있는 남평문씨 집안 자녀들의 교육 기관을 담당했던 만권당을 재해석한 공간이다. 만권당에서는 문화예술과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 강좌를 진행하며 예술가와 평론가, 관람객이 서로 만나 소통하며 의견을 교류한다.

호기심,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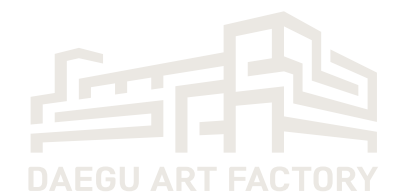
대구예술발전소는 대구 근대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지역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가고 있다. 역사의 정통성은 현 시대와 연결된다. 탄탄한 역사적 배

경이 뒷받침되어야만 문화예술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공공의 예술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된다.

남인숙 소장은 "대구예술발전소가 미래 자산의 주요 장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거 역사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대구예술발전소만의 방향을 확립하고, 그 기능을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행정 지원이나 문화예술 제도 그리고 아낌없는 시민의 지지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전소 내부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가고, 대외적으로는 시민 누구나 예술 활동을 지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장 혹은 참여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대구예술발전소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에 대해 말했다. 또한 남 소장은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즐겁게 작품을 보고, 느끼며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마음대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의 작업과 작품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길 소망하며, 문화예술의 창작 동력인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고 다가와 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달성군민과 대구시민에게 바람을 전했다.



한편 대구예술발전소는 최근 3층 수창홀에서 공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술가와 단체를 공개 모집했다. 지난 4월부터 선정된 예술가와 단체의 실험적 성향의 작품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되고 있다. 기획·편집부



보통의 일상에 미술을 입히다 푸른색 여유의 미학을 만나다

대구미술관

머무름의 공간

‘여유의 미학이 존재하는 문화 공간’. 대구 미술관을 소개하는 캐치프레이즈다. 2011년 미술관 개관 당시 자연 친화적인 장소의 특징을 들어 ‘삶의 여유, 진정한 휴식을 대구미술관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구미술관 대지의 전체 구성은 팔공산 ‘동화사’ 건축양식에서 유추한 것이라고 한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접근이 쉽도록 대지 아래쪽에 건물을 구성하고, 후면부 자연 공간을 보존해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미술관 건물 앞에는 구름다리를 지었고, 그 아래 수변휴게공간에는 물길과 바람길이 만나도록 조성되어 있다.

대구미술관 1층 어미홀, 1전시실에서는 1년에 3번 주기로 전시가 바뀐다. 해외 교류전시, 설치 작품 등 메인 전시가 들어서는 공간이다. 2층에는 연례전, 대구 미술 등을 볼 수 있는 2, 3, 4, 5전시실이 있다. 빛이 들지 않는 지하 프로젝트룸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3층에 마련된 미술정보센터는 드라마



대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상징 공간
대구미술관이 도심 외곽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발견하고, 찾아가는 즐거움’의 기록 한편에
‘대구미술관의 여정’이 자리한다.



‘시크릿가든’ 주인공의 집 책장을 연상케 한다. 보기 드문 미술 관련 서적이나 도록을 찾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의 품과 빛

‘어미홀’과 ‘3전시실’의 전시를 기억하는 이들이 유독 많다. 미술관을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기도 한 어미홀은 전시장 외에도 때에 따라 공연장 혹은 강연장으로 바뀌기도 한다. 높이 18m, 폭 15m, 길이 42m, 1152㎡(349평) 규모로 ‘어미’가 품어내고 생성하는 장소. 자연 모체 역할의 의미를 이 공간에 담았다. 어미홀은 미술관 입구 그리고 각 전시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동선과 연결되어 작품을 보는 각도와 높이에 따라 다른 느낌이 전달된다. 이 웅장한 공간은 미술계 대가, 신인 작가를 막론한 모든 예술가, 그리고 관람객에도 ‘창작열’을 북돋아 주고 있다. 또한 3전시실은 외부의 자연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쪽 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다. 자연과 교감을 이루는 작품이 주로 전시된다. 기존 작품이 자연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다른 작품으로 보이기도 한다.

2013년 대구미술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쿠사마 야요이’展, 〈A dream I dreamed〉의 긍정적인 색감과 강한 비주얼 작품이 어미홀과 3전시실에 놓였다. 이 전시는 33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해 기록적인 인기를 얻었다. 현재 어미홀에는 〈판타지 메이커스_패션과 예술〉展 작품 중 하나로 피에르 파브르(Pier Fabre)의 ‘색울림’ 작품이 전시공간을 가득 메우며 관람객의 이목을 끌고 있다. 3전시실에는 〈스코어: 나, 너, 그, 그녀 {의}〉展의 작품이 대구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감상, 공감

〈판타지 메이커스_패션과 예술〉展은 패션과 예술 두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순수한 창조성, 그리고 창조물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간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간접 경험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상의 세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스코어: 나, 너, 그, 그녀 {의}〉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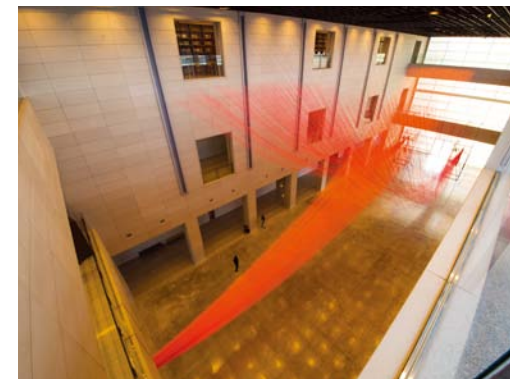
관된 ‘음악’을 모티프로 한 현대미술전시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쁜, 우울하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한 ‘나, 너, 그, 그녀 {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이자 오늘의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대구미술을 열다_석재 서병오〉展은 근대기 ‘영남이 낳은 천재’라 일컫는 석재(石齋) 서병오의 진면목을 알리는 전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가 지닌 예술의 진가를 확인하고, 또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대구미술관은 ‘dam’s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dam’s 렉처〉, 〈dam’s 특강〉,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전시연계특별강좌〉 등 미술, 미술관과 관련된 정보와 대구 미술을 알리고 또한 작가를 초청해 강좌를 펼치기도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 도슨트와 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브런치를 먹으며 현재 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dam’s 특강〉 ‘도슨트와 함께하는 11시 Tea-Time’이 가장 인기라고 한다.

대구의 자화상

대구미술관의 역할은 바로 대구 미술의 정체성을 응축시키고 지역 미술사를 정리하며 그 우수성을 대구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대구 미술의 역사를 정리하는 첫 번째 연례전이 바로 〈대구미술을 열다_석재 서병오〉展이다. 이 전시는 대구 미술의 뿌리를 찾아 해외로 알리기 위한 초창기 작업으로 기획됐다.

대구미술관 홍보·마케팅 문현주 팀장은 〈대구미술을 열다_석재 서병오〉展과 관련해 대구미술관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전했다. “대구 미술이 한때는 한국 미술이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곧 대구미술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것, 대구만의 흐름이 있어야 해외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앞으로 대구 미술과 관련된 작업과 해외 교류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컬래버레이션 작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여유의 미학이 존재하는 문화 공간’ 대구미술관이 모두에게 ‘내 삶 속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랍니다.” 한편 대구미술관은 지난 4월 6일 프랑스 국립현대미술연구기관 르 프레누아(Le Fresnoy) 디렉터 알랭 플레셔(Alain Fleisher)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갖고 두 기관의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활발한 국제 교류의 발판을 다졌다.  기획·편집부



담양 스케치

달성의 자매도시

대나무의 도시 전라남도 담양.

처음 찾은 담양의 풍경은 섬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고장이라 말하고 싶다.

곳곳에 뻗어있는 푸른 대나무들과 덩성덩성 보이는 오래된 한옥과 가옥들이 정감 있다.

현것을 허물고 새것을 짓기 바쁜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와 달리,

어느 오래된 소설책의 한 페이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담양은 그런 인상의 마을로 다가왔다.

休

죽녹원 그리고 이이남 아트센터



담양에 도착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유명한 관광명소인 '죽녹원'이다. 죽녹원은 담양의 명물인 대나무를 이용한 산책로를 조성한 곳으로 마음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2003년 5월에 조성되어 약 31만㎡의 대나무 숲으로 구성된 이곳은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철학자의 길 등 8가지의 주제로 산책로를 구성해 찾는 이들의 심신의 평안을 선사한다. 여러 산책로를 조용히 걷다보면 바람에 발맞춰 일렁이는 대나무와 스치는 바람이 조용히 마음 한 켠에 머물며 세상의 근심걱정을 위로하듯 얼굴을 어루만진다. 죽녹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이이남 아트센터'다. 이이남은 담양 출신의 미디어아티스트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다. 아트센터에 게시된 작가 노트에서 작가는 "이이남 아트센터가 고향 담양, 그중에서도 죽녹원의 한 공간에 자리 잡게 된 것을 작가로서 천운이라 생각한다. 담양에서 얻은 감수성이 작품으로 재현된 결과물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전망을 줄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며 담양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이남의 작품에는 대나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대나무가 작가가 이야기한 담양의 감수성의 일부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자연 속 선비정신의 상징 소쇄원

죽녹원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국가 사적 304호로 지정된 '소쇄원'이다. 소쇄원은 조선중기 양산보가 조성한 민간 별서정원이다. 별서정원이란 세속의 벼슬이나 당파싸움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여 산속에 지은 집으로, 이 저택의 주인인 양산보는 스승인 조광조가 기묘사화(1519)로 유배된 후 세속의 뜻을 버리고 고향인 이곳에 소쇄원을 지어 생을 보냈다. 소쇄(瀟灑)는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당시 사대부의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양산보의 의지를 잘 표현한 이름이라 한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민간정원이기도 해 당시의 생활상과 건축 그리고 조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함축하고 있는 담양의 유서 깊은 사적이다. 소박한 집과 담장, 마당을 가로지르는 시냇물과 곳곳에 심겨진 아름다운 꽃나무는 세속의 팍팍한 삶의 근심을 한겨울 내려놓게 하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감각이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새겨진 어떠한 정서와 닮아있는 건 아닐까.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 소박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향을 이 '소쇄원'에서 찾은 듯한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일까.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산속에서 새와 나무와 벗하며 세속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하루하루를 택한 양산보의 심정이 어렴풋이 전해졌다.



문화예술을 담은 담빛예술창고

다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담양문화재단이 있는 2015년 9월 14일에 개관한 '담빛예술창고'다. 죽녹원과 메타세콰이어 길 사이에 위치한 담빛예술창고는 독특한 건축구조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건축물은 1970년대부터 개인의 양곡창고로 사용되다 2004년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0년간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 폐창고를 개조해 창고 그대로의 건축 구조를 살린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 바로 담빛예술창고이다. 철골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천정과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벽면이 옛 창고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외벽에도 한자로 '南松倉庫(남송창고)'라는 옛 간판 문자를 그대로 남겨둬 이 장소의 역사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예술시설로서의 감각적 독창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창고를 활용한 예술공간 건축양식을 로프트식 예술공간이라 하는데 이는 뉴욕의 소호에서 발생한 양식으로, 담빛예술공간은 중국의 대표 로프트식 예술공간의 집합체인 베이징 '798 예술구'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 군수물품 공장지대였던 798 예술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경영의 어려움에 부딪치자 임대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때, 저렴한 임대료에 넓은 작업실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복합예술단지로 발전해 지금은 베이징의 3대 여행 특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담양군은 798 예술구의 방식을 차용해 빈 가옥이

나 창고건물을 예술공간으로 환원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문화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담빛예술창고는 바로 이 계획의 최초 결과물이다.

현재 이곳은 2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A동은 오로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B동은 카페 및 재단 사무실로 구성되었다. B동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대형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다. 담양군이 담빛예술창고 계획 시 고심하던 부분이 바로 도심과 떨어진 위치적 단점을 극복하고 일반에 홍보를 위한 일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최종 선택된 것이 이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에서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이 오르간은 담양의 상징인 '대나무'가 주재료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담빛예술창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서 자리매김 했다. 오르간 공연도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돼 이곳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풍성한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담빛예술창고를 활용한 다양한 미술전시기획은 연중 상황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미술을 접할 수 있게 오픈돼 있으며, 단순히 카페에 차를 마시러 오는 손님이나 잠깐 쉬러 오는 관광객들도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미술품과 만나게 된다. 또한 지역작가에게 매년 하반기에 무료로 전시공간을 대여해 주어 지역예술가 부흥에도 힘쓰고 있다. 담양문화재단 김남용 큐레이터는 "담빛예술창고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만나는 예술을 추구합니다. 아직 지역에는 예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미술, 우연히 만나는 공연을 담은 '예술의 창고'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담양군과 담양문화재단은 담빛예술창고 뿐 아니라 곳곳에 산재돼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 담양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꾸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담양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이나영

담빛예술창고





나는 이방인기에 자유로웠다

스페인에서 느꼈던 행복한 삶, 여유, 여행의 의미를 떠올리면 무미건조해진 일상에 돌아와도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우물쭈물하다 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떠올리며 지금이 아닌 또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떠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인천에서 스페인까지 비행시간만 14시간, 장거리 비행에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 하늘이 화창하고 푸르렀다. 이억만리 먼 곳이지만 하늘은 늘 보던 그 모습이었기에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마드리드 공항에서 수많은 여행자 중 한명이었다. 낯선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 버벅거렸고, 커다란 건물에서 갈 곳을 몰라 우왕좌왕 하기도 했다. 이따금 손짓 발짓 섞어가며 몇 안 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 목적한 곳을 찾았다.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았다. 난 공항에 있는 수많은 여행자 중 한명이었고, 서툰 언어와 몸짓으로 낯선 환경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했으니까.

SPAIN

Madrid

Barcelona

이것은 여행자의 특권이고, 현지인들도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져 주었다. 스페인에서는 틀려도 괜찮고, 미숙해도 괜찮았다.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틀림과 서투름을 두려움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집과 회사, 그리고 사회의 여러 곳에서 나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속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탓하지 않는다 해도, 실수에 대한 자괴감과 강박증으로 스스로를 움아맸다. 성장기부터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사회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마음속에만 들어 놓은 것이다.

“올라!(안녕하세요.)” 

눈이 마주친 외국인에게 웃음 지으며 건넌 인사가 미소로 되돌아왔다. 때론 인사에 대한 답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먼저 인사를 건네려 할 때 느꼈던 불안함과 주저함은 스페인에 온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여행이 주는 마법에 걸려버린 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사랑하는 것인가?

난 머릿속에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막연하지만 아름다운, 누구나 갈망하지만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없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이 아닌가 한다.

스페인에서 나는 가급적 걸어서 이동했다. 길거리의 이국적인 풍경을 차 안에서 스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다리는 아팠지만,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발을 디디고 땀을 흘리고 주변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을 느끼려 애썼다. 마드리드 Gran via 거리의 화려함과 톨레도 골목길의 고풍스러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기자기한 세비아와 아랍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알함브라 궁전의 그라나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명물 람블라스 거리까지. 특히 스페인이 좋았던 것은



■ 밤 11시까지도 거리에 인적이 끊이지 않는 점이다. 덕분에 해가 진 후에도 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낮과는 다른 매력도 느낄 수 있었다. Gran via의 화려함은 현대적으로 세련된 조명이 있어 더욱 빛났고, 세비아의 식당에 불이 밝혀지니 아기가기했던 거리가 활기로 북적거렸다. 특히 스페인광장은 낮과 밤이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며 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알함브라 궁전과 어둠이 내린 알바이신의 삭막한 골목길은 그라나다가 가진 아누스의 두 얼굴이었고, 새벽까지 즐길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는 밤이 되면 더 젊어졌다. 걷다가 지칠 때는 주변에 있는 식당에 들러 쉬어 가면 되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에 5끼를 먹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음료를 시키면 타파스라 통칭되는 음식이 따라 나와, 저렴한 가격으로 쉬면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더군다나 맛까지 있었으니 나 같은 여행자에게는 축복 같은 일이었다.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새로운 것을 보며 맛있는 것을 먹고 마음대로 걸어 난 자유를 누렸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내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다. 정열적으로 플라멩코를 추던 붉은 드레스의 무희도 그랬다.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지만, 무대를 마친 뒤 셀프 제작한 음반을 홍보할 때 거절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웨이터도, 호텔의 지배인도,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하며 사는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나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자유로움을 주는 스페인에서, 정작 스페인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았다.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나와 같은 수많은 여행자들 뿐. 그제야 나는 내 자유로움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



■ 가족의 일원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가진 책임들이 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내게 아무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머물다 갈 여행자이니깐. 당연히게도 스페인 사람들도 내게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잠시 자신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행의 시간은 결코 오래 이어질 수 없기에 소중한고 아름다운 것이다.

바르셀로나 공항을 출발하여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달했을 때, 나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들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은 다시 여행을 꿈꾸고 있다. 여행을 통해 잠시 이방인이 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돌아가야 하는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 소중한고 즐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다시 이방인이 될 날을 소망하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감사해본다.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관원영



쿠바, 몰락의 낭만 속에서 배우다



그 어떤 곳보다 다양한 편견과 오해를 가진, 그러나 강렬하고 진한 혁명의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 카리브 해에 위치한 쿠바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느긋하게' 흘러간다. 헤밍웨이가 강제추방 전까지 떠나지 않으려 했던 것도 그런 연유인걸까.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나라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이 있는 곳, 불평등이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공공연히 존재하는 곳, 공동체 붕괴가 완전한 이 시대에 사회적인 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 이율배반적 모순으로 가득 찬 쿠바는 마치 시대의 이방인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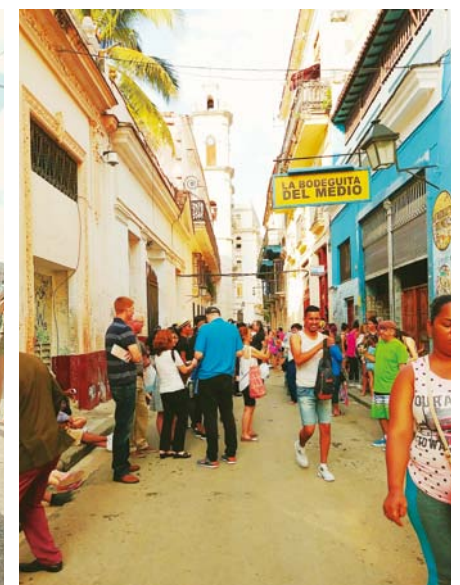


쿠바의 첫 인상은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 국가와도 비슷하다. 낡디 낡은 거리, 전쟁 폭격이라도 맞은 듯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건물들, 피부로 먼저 느껴지는 강렬한 매연.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쿠바의 진면목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의 단상은 너무나도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혁명과 일상은 일순 서로 상반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쿠바노(쿠바인을 이르는 말)의 삶을 진중하게 들여다 본 이는 알 수 있다. 지금의 쿠바를 있게 한 혁명의 유전자가 그들 삶의 전반에 녹아있음을...

자국 내에서만 환전이 가능한 탓에 쿠바의 환전소에는 늘 사람이 북적인다. 어림잡아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겨우 차례가 돌아온다. 그러나 일렬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관광객이다. 쿠바노는 차례로 줄 서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롭게 흩어져있다 자기 순서가 되면 나타난다. 라인 밖에서 줄을 서게 되는 비밀은 이 한마디에 있다. '울띠모(último)?' 그러면 저쪽 어디서 누군가가 손을 든다.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확인 후 고개를 끄덕이며 원하는 곳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쿠바노. 별 것 아닌 듯 보이는 이 풍경은 쿠바의 문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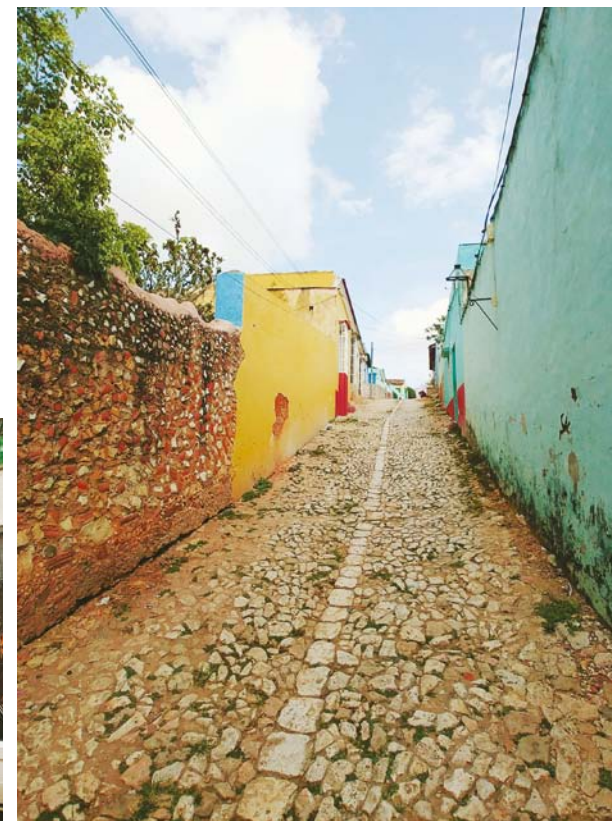
CUBA





남루하고 낡은 민박집이라도 벽 한쪽에는 그림이 걸려있고, 거리 어디든 음악과 춤이 넘쳐나는 것이 쿠바다. 콜럼버스가 이 섬을 처음 발견한 이후 시작된 원주민 학살과 스페인 지배, 독립전쟁, 독재 쿠데타, 혁명, 미국의 봉쇄정책 등 파란만장했던 이 땅의 역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 꺼지지 않는 불꽃을 안겨주었다. 비록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수교를 할 만큼 자국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고 국가의 배급은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잘 알려진 우화 <개미와 베짖이>에서 열심히 일한 개미는 살아남고, 베짖이는 죽는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베짖이가 죽기 전 개미가 먼저 과로사 한다. 그러면 쿠바는 어떨까? 쿠바에서는 <개미와 매미>로 주인공이 바뀐다. 개미가 매미에게 묻는다. “내가 땀 흘리며 일할 때 너는 뭘 했지?” 매미는 답한다. “열심히 노래하며 모두를 즐겁게 만들었지” 개미는 뭐라고 했을까. “그렇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함께 춤추며 살자꾸나”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느긋하게’ 흘러간다.
헤밍웨이가 강제추방 전까지
떠나지 않으려 했던 것도
그런 연유인걸까.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평등. 동일화가 아닌 융화의 지혜, 의외의 다양성이다.

쿠바노는 주어진 현실 안에서의 최대치를 누리는 자유를 만끽한다. 대궐 같은 집 또는 최신형 차는 아니지만 살뜰히 보수하고 가꾸며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결핍을 통해 창조력을 얻은 그들은 물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는 낯설기만 하다. 이런 그들을 두고 ‘몰락’을 말하는 이가 있다. “현재의 공업사회가 너덜너덜 무너지고 자유무역도 붕괴하기 시작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은 부드럽게 몰락해야 한다”고 주장한 요르크 프리드리히스 교수는 부드러운 몰락에 성공한 케이스로 쿠바를 꼽는다.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풍요로운 시절을 겪던 쿠바노들은 1962년 미국에 의해 교역과 원조가 막히고, 1991년 원조국 소련의 붕괴까지 이어지며 쿠바는 고립상태에 내몰린다.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쿠바는 타개책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축을 연구했다. 그리고는 살아남았다. 그 와중에 평등과 연대, 인간 존엄의 기초는 버리지 않았다. 어려운 시기에도 사회복지지는 유지되었고, 예술과 문화는 사회정책으로 중시되었다. 쿠바가 의료·교육 및 재해방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적 분권화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통해서다.

모두가 성장을 외치는 이 시대에 쿠바식 순환형 사회로 반(反)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항과 순응의 변주였다. 세계적 불확실성과 자원고갈의 불안으로 초래될 위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질이 아닌 정신의 내구성을 다져야 할 때다. 쿠바정신의 변주는 쿠바 국립미술관의 힘 있고 독특한 작품들에서 만날 수 있었다.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변곡점은 문화를 통해 그 힌트를 얻는다.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에서 미래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출발점 또한 거기에 있다. 달성은, 달성의 정신은, 달성의 문화는 어디로 향하는가?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박현주

삿포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인간과 인간이 만나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

Sapporo, Artist in Residence

삿포로라는 지명은 본래 홋카이도 원주민 아이누족의 말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눈의 주민인 아이누족의 감성이 반영된 영향인지 '삿포로'라 발음하면 뾰드득 눈 발자국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하다. 3월이라는 계절이 무색하게 아직도 눈보라가 빈번히 대지를 채우는 이 땅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운영하며 문화예술의 생생한 시간을 썬내려가고 있는 두 기관을 방문했다.

마을주민과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

아직도 눈이 허리 위까지 쌓인 텐진산. 아슬아슬한 눈길
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붉은 벽의 '텐진야마 아트 스
튜디오'를 발견할 수 있다. 로비로 들어서니 동네 꼬마
들이 입구에 마련된 흑판에 낙서가 한창이다. 왼편에는
사무실이 보인다. 넓진 않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무
실에서 직원들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멋
쩍게 들어선 나를 반갑게 맞아준 이곳의 디렉터인 오
다이 마미씨. 그녀는 무작정 이곳을 찾은 낯선 방문객
에게 레지던스에 관한 이야기를 미소 띤 얼굴로 찬찬
히 들려주었다.

일본의 여러 문화예술기관을 둘러보다 보면 새로운 공
간을 짓기보단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 예술 시설이 다수
눈에 띈다.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 역시 삿포로 국제
예술제(SIAF) 개최를 계기로 삿포로시가 기존의 '삿포로
텐진야마 국제 하우스'로 28년간 운영되던 건물을 재활
용해, 2014년 4월에 오픈했다. 아직 오래지 않은 역사 임
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예전부터 지역과 함께해 온 공
간마냥 친숙한 시설로 자리매김 했다.
이곳은 크게 '체류 스튜디오', '교류 스튜디오', '텐진산
휴게소'로 나누어지는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운영된다. 체류 스튜디오는 유료로 운영되는 '아티스트



Sapporo Tenjinyama Art Studio



레지던스'로서 국내외 예술가들이 창작과 조사활동을 위해 머무는 스튜
디오다. 교류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내의 여러 공간을 회의와 워크숍, 서
클활동, 연습실 등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 예술교류의 활기를 불
어넣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더해, 이 건물은 텐진산의 휴게소로서 남
녀노소 할 것 없이 이곳의 로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주민들의 쉼
터, 학생들의 스터디 모임, 독서실 등 다양한 민간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티스트 레지던스의 기능, 즉 예술가들이 전시와 발표에 앞
서 사전 리서치와 준비를 위한 일종의 작업실로서의 역할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전, 삿포로의 문화시설은 주로 전시와 발표회만 가능한 공간 밖
에 없는 실정이었기에 중장기 국제 교류 행사를 주관하는 예술단체는 높
은 비용을 지불하여 시내의 호텔이나 빈 방을 빌려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
다.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가 개관하면서 하루에 원화로 만 원도 안 되
는 금액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이용이 가능해져 삿포로의 민간
이나 공공 예술단체들의 국내외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원동력이 됐
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16개국 417명의 예술 관
련 종사자들이 이곳을 이용한 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국제적으로는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응모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매년 3명의 외국 예술가나 기획자를 선발해 6주간 레지던스 공간을 제
공하고 리서치와 제작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국제 교류 활성화와 문
화예술 수준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디렉터 오다이 마미씨는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는 예술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 열려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과 예술가가 자연스레 친해지고 예술을 생활의 하나로 받아들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자주 찾는 고등학생들은 작가들과 사이가 좋아져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웃고 떠들어요.(웃음) 앞으로 이런 아티스트 레지던스가 국내외에서 많이 활성화 돼,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인간의 교류가 더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며 소망을 나누었다.

NPO(Non Profit Organization) 즉, 비영리법인 S-AIR는 ‘Sapporo-Artist in Residence’의 약자로 1999년부터 문화청 등의 국가 보조금을 받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을 시작했다. S-AIR는 자체 레지던스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나, 레지던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다양한 문화기관과 공동으로 AIR(Artist in Residence)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국내외 아티스트를 삿포로에 초청해 예술활동을 도와주고 이를 계기로 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히가시카타 유헤이씨는 “예술가들이 삿포로에 머물며



오직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위한 기관,

NPO S-AIR

S-AIR의 사무실은 삿포로 히가시구의 낡은 공장과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얼핏 지나칠 수 있는 이 건물 안에는 S-AIR의 사무실 외에 작가의 작업실과 문화예술 관련 작은 회사 등이 입주해 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무실에서 S-AIR의 프로그램 디렉터이자 현역 작가인 히가시카타 유헤이씨를 만났다. 작년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에도 참여했던 작가인 그에게 그간 S-AIR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작업하는 것이 S-AIR 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한 분들에게 체류비와 제작비 그리고 숙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여, 삿포로 내에서의 창작활동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대부분 국가와 공공단체, 삿포로 시 등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라며 법인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이곳에서 현재 진행하는 아티스트 초청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시작된 ‘프론티어(FRONTIER)’이다. 프론티어는 문화청의 보조금을 받아 기획된 행사로 매년 4명의 해외 예술가를 초빙해 진행된다. 이들은 삿포로에 머물며 삿포로 시내를 조사하고 기록하며 그와 관련된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한다. 이전에도 동아

Sapporo
NPO
S-AIR



시아 크리에이터 교류 프로그램이 ‘JENESYS Programme’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는데, 2008년부터 5년간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나라에서 선발된 작가 10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35개국에서 88명의 작가가 삿포로를 다녀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삿포로에서 창작한 작가들의 결과물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2년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인 저스틴 안브로시노가 삿포로에서 제작한 단편 필름인 ‘Hungry for Love’가 2015년 패션에 초점을 맞춘 단편 영화제 ASOVFF(A Shaded View on Fashion Film)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S-AIR는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한 일본작가 해외 파견 사업인 ‘S-AIR AWARD’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대만, 뉴

질랜드, 중국, 미국, 영국, 태국, 네덜란드, 멕시코 등지의 레지던스 운영 기관과 연계하여 ‘S-AIR AWARD’를 진행해 왔다. 파견을 다녀온 작가는 귀국 후 성과에 관한 발표회를 가지게 된다. 내부로의 초대뿐 아니라 외부로 자국의 작가들을 보내어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 기획은 자국작가에 대한 지원까지 배려한 기획이기도 하다. 내부와 외부의 조화를 온전히 이루는 S-AIR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은 삿포로에는 물론 일본 전역의 예술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창작의 자극제를 선물하고 있다. 한편, ‘AIR-CAMP’라 하여 예술 기획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최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다. 2박3일간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에 머물며 아티스트 레지던스에 관한 발표와 토론, 세미나를 가지는 이 기획은, 다양한 분야의 기획자들이 지역 문화예술교류, 미술계의 현황, AIR



사업 등에 관한 의견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의 비전을 논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 인간과 인간이 만나 만들어지는 예술 현장

삿포로와 국내외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는 S-AIR와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는 일본 전 지역 문화예술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두 기관을 통해 아티스트 레지던스의 운영은 작가교류라는 표면적인 부분 이전에 각 예술기관과의 네트워킹이 바탕이 되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은 이러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탕이 된 인적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인적 그물망이 근본이 되는 삿포로의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통해 느낀 것은, '인간' 그 자체가 소재가 됨으로써 작가들은 미술의 통념적 개념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창작의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점이다. 인간은 정치, 문화, 사상 등의 다양한 개념이 연결돼 있는 소재로, 그 사회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관찰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이다.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의 작가들은 이러한 '공감'의 과정을 거치며 이방인의 눈으로 포착한 낯선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여 한층 더 농밀하고 노련한 창작의 길로 들어서는 원동력으로 삼는다. 마치 모더니즘의 족쇄를 뿌리치고자 파격적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과거의 미술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레지던스를 통한 또 하나의 미술사적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를 목도한 것만 같다. 단지 과거와의 차이라 한다면 작가들의 장르와 개념, 이론이 다채로운 가운데, 예전의 저항적인 시도가 아닌 천천히 대지를 적시는 가랑비처럼 조용하게 우리네 문화에 스며드는 소리없는 강함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스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면 바로 이런 인본주의적 이해라고 말하고 싶다. 기존의 갤러리와 미술관은 인간이 아닌 '작품'이 온전히 주인공인 기관이다. 레지던스는 예술가와 기획자, 나아가 시민들까지 연결된, 인간과 인간이 만나 완성되는 '공동 문화 예술 창작소'다. 낯선 지역에 체류하는 예술가는 시민의 생활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그 경험이 반영된 작품을 창작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지역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힌트를 준 결과

물이며, 이를 감상하는 시민들은 예술을 좀 더 친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다양한 감각과 지식을 재료로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꼬집어 내, 현실로 구현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가와 지역시민이 내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이야말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가 오늘날 예술의 현장에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이나영

과거의 향수를 동경하는
나그네를 위한

오사카 시립 주택박물관, 오사카 역사박물관

3월의 오사카 거리는 봄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거리 곳곳에
심겨진 벚꽃나무의 연분홍 벚꽃이 아름답게 흩날린다. 가끔
이렇게 낯선 나라의 이름 모를 동네를 걷다보면, 그곳의
역사가 어땠는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문득 떠오르곤 한다. 이번 여정에서는 이 낯선 거리의
과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에도시대로의 시간여행 오사카 시립 주택박물관

일본의 에도시대. 한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일본역사
의 한 자락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바로 전 시대를
일컫는 용어인 에도시대는, 일본 전국시대의 통일을
이룩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
하이자 반대세력인 도쿠가와 이에아스가 정권을 잡으
며 에도(현재의 도쿄)를 본거지로 1600년부터 시작돼,
1867년 막을 내린 시대를 지칭한다.
오사카 덴진바시6초메역의 지하철에서 곧바로 이어지
는 '오사카 시립 주택박물관'은 막부말기인 1830년대
오사카의 에도시대 상점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인
기인 박물관이다. 이곳은 2001년 4월에 개관했으며 주
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일본 최초의 전문 박물관
이기도 하다. 9층 전시실에는 에도의 상점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으며 상점에서 실제 판매했던 상품
에서 집안의 생활도구까지, 당대의 주거와 생활을 세



O
s
a
k
a



세하게 반영했다. 이 인공 마을에는 에도시대부터 출현한 약국을 비롯, 공중 목욕탕, 액세서리와 공
예 용품점 등 다양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다. 각각의 상점에는 그 건물의 간략한 도면과 설명이 곁들
여진 전단지를 비치해 방문객의 이해를 도왔다.
이곳이 다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비해 관광객들에게 단연 인기인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기모노를
대여해주기 때문. 기모노 차림으로 오사카의 에도시대 거리를 거닐어 보는 것은 오사카를 찾은 방
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리란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부 마을의 상점에는 직접 들어가 쉴 수도
있고 도구들을 만져볼 수도 있어, 마치 타임슬립 해 에도시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시시각각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조명은 당대의 낮과 밤을 간접 체험하게 해 리얼리티를 더한다.
이름 모를 거리를 걷다가 오래된 가옥과 풍경을 마주하게 되면 잊혀진 감성이 마음을 자극하는 것처
럼, 오사카의 문화와 역사에 몸과 마음을 취하게 하는 오사카 시립 주택박물관.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사카의 진면목을 즐길 수 있는 핫 플레이스라고 말하고 싶다.

오사카의 역사를 한눈에 오사카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이라는 조금은 지루한 이름이 붙여진 이곳 또한 의외로 알려진 관광코스 중 하나다. 이곳 역시 주택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나, 차이점이라 한다면 각 층을 시대별로 분류해 더 많은 사료와 재현물이 전시돼 있다는 점이다. 다니마치4초메역에서 가까운 오사카 역사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오사카의 문화와 역사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헤이안시대 나니와궁의 옛 유적 위에 건설되어, 2001년 11월 개관 이래 국내외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 10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네 개의 시대를 중심 테마로 시각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실제 역사 속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조형물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방문객들은 티켓팅 후 박물관 맨 위층인 10층부터 내려오면서 유물들을 관람하도록 안내받는다.

10층은 고대 플로어로 헤이안시대(나라시대) 나니와궁의 대극전을 실물크기로 복원한 구조물과 당대 의상을 입은 궁인들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9층은 중세, 근대 플로어로 물의 도시라 불렸던 오사카의 에도시대를 재현한 층으로 오사카 인근의 상업도시 사카이에 대한 역사도 엿볼 수 있다. 8층은 고고학연구소 컨셉의 플로어로, 여러 가지 도구와 유물자료를 활용해 역사와 자연스레 친해지게 하는 공간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7층 근대, 현대 플로어로 10층부터 이어진 시간



O s a k a
Museum of
History

여행은 이곳에서 종점을 찍는다. 이 층은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초기, 오사카의 중심 변화가인 신사이바시지, 도톤보리 등의 거리를 당시와 같은 스케일과 분위기로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록영상을 더해 근대의 향수에 듬뿍 취하게 한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은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라는 학문을 보기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해 방문객의 발길을 오래 머물게 했다. 오사카를 찾은 방문객들은 이곳의 현재만 만날 뿐, 과거에 대한 지식은 전무함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는 물론 세계 각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그 나라의 역사가 낳은 유적과 시간의 흔적을 찾아 헤맨다. 그리고 보면 인간에게는 낯선 무엇과 마주할 때 그것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만 같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은 이 본능에 화답하듯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관람객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단지 스쳐 지나가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네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나그네의 발길을 잠시라도 더 머물게 하고자 한다면,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에 충실히 대답할 수 있는 오사카 역사박물관과 같은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채웠다.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이나영

인문학 총서 프리뷰

1 달성의 독립운동가 권대웅

- 프로필**
-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
 - 전 대경대학교 교수



집필내용 요약 《달성의 독립운동가》는 달성군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한국독립운동사의 전개 과정에 따라 시기 별로 약전(略傳)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대한제국기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하여 의병 활동을 전개했던 최초의 의병장 문석봉 의병장(현풍 상동)과 신민회 최연소 회원 구찬희(서변동 무태)를 다루었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 조선국권회복단 통령 윤상태(월배), 대한광복회 지휘장 우재룡(유가 유곡)을 비롯하여 3.1운동과 제1차 유림단 사건 우하교(월배) 등을 다루었다. 1920년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특파원 이현수(이두산, 화원 명곡)를 비롯하여, 문영박(화원 본리), 만주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대한독립군정사 사건의 이증로(하빈 현내)와 제2차 유림단 사건의 이봉로(하빈 하곡), 그리고 의열단 부단장이었던 이종암(공산 백안), 신민부 군자금 모집사건의 손양윤(서변동 무태), 국내·외에 거쳐 의열단과 신간회 활동을 전개했던 이경희(서변동 무태) 등을 다루었다. 1930년대는 대구에서 비밀결사 무원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김병욱(하빈 현내)을 비롯하여 일제말기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다루었다.

2 100년 달성, 달성 100년 김대식

- 프로필**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전국사진공모전 다수 입상



집필내용 요약 '달성 인문학' 집필을 의뢰받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아름다운 달성의 풍경과 문화를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가슴에 와 닿는 장면으로 재현해 보려는 욕심이 생겼다. 기존의 자료를 참고해서 대상을 선정하여, 시기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집필에 임했다. 일상적으로 보던 풍경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다른 시각과 구도로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으며 빛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앵글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 결과물을 엮을 것이다.

3 달성의 누와 정(누각과 정자) 김봉규



- 프로필**
- 경북대 법학과 졸업
 - 『불맥, 한국의 선사들』, 『길따라 숲찾아』, 『한국의 혼, 누정』 등 다수 집필

집필내용 요약 '달성의 서원과 정자'라는 제목으로,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전통 서원과 정자를 답사하고 취재해 서원과 정자에 대한 역사와 그 주인공들의 삶과 일화 등을 정리해 소개한다. 도동서원을 제외하고 낙빈서원, 이양서원, 녹동서원, 인흥서원 등 12개의 서원과 태고정, 하엽정, 하목정, 영벽정, 이로정, 대양정 등 10개의 정자를 다룬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서원과 정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곁들인다. 서원과 정자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는 달성 인문학의 뿌리와 역사, 특징 등을 살펴보는 재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4 왕선고개 류영철



- 프로필**
- 전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강의교수
 - 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집필내용 요약 고려가 건국된 지 10년째인 927년, 과거의 달성군역인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공산전투가 있었다. 왕건의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간 전투였으며, 왕건은 참패하였다. 거의 대구 전역을 돌아 도주한 왕건은 마침내 현재의 달성군역인 왕선고개에 이르러 재건의 결기를 다졌다. 도주에 성공한 왕건은 결국 2년여 후 안동의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결국 936년 선산의 일리천 전투마저 승리함으로써 후삼국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담고자하며, 그 과정에서 당시 대구지역의 존재양태와 달성군의 왕선고개가 지닌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5 도동서원 이수환



- 프로필**
- 현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조선후기 서원연구』, 『용산서원』(공저), 『도동서원지』 등 다수 집필

집필내용 요약 이 책은 조선시대 道學之宗으로 평가받는 한훤당 김굉필을 모시는 대표적인 서원인 도동서원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서원에는 서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서원의 건립과 사액, 교육, 운영, 제향, 경제적 기반, 건축적 특징 등 도동서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소개하고자 한다.

따뜻한 분홍빛을 머금은 참꽃

참꽃이란?

봄이 오면 우리 강산의 산과 들과 마을 곳곳에서 분홍 빛 진달래, 즉 참꽃을 만날 수 있다. 따뜻한 색감으로 봄에 걸맞는 기운을 뽐내는 참꽃은 예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한 역사와 향수를 머금은 꽃이다. 참꽃은 철쭉류 중 가장 일찍 개화하는 종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에 주로 피어나며 여타 비슷한 모양새의 꽃들과 달리 식음이 가능하여 예로부터 사랑받는 우리네 봄꽃으로 자리매김했다. 참꽃은 여러해살이 낙엽관목으로 높이는 2m~3m 정도로 자란다. 꽃은 술을 담아 마시기도 하며 화전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고혈압, 관절염, 기관지염 등에 약으로도 쓰인다.

참꽃에 관한 전설

참꽃에 관한 전설도 심심치 않게 내려오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슬픈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두우왕'에 관한 전설과 나무꾼과 선녀의 딸 '달래' 이야기이다. 중국 촉나라의 왕이었던 두우왕은 별령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화병으로 죽은 후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한 맺힌 피를 토했는데 이 피가 두견화 즉 참꽃이 되었다고 한다. 달래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달래가, 마을에 부임한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여 죽임을 당한 후 핀 꽃이 진달래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Azalea Flower

우리네 참꽃, 비슬산 참꽃문화제

봄날 흐드러지게 피는 참꽃을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먹을 것이 여의치 않아 배를 곯던 그 옛날 화려하게 봄을 표현하던 모양새로 마음의 위안을 주고, 사람이 먹을 수 있어 이른 봄 간식거리로 허기짐을 해결해주던 진달래는 '참꽃'이라 하여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그도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 예의 그 풍경은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하기 힘들어졌다. 먹거리는 풍부해진 반면 참꽃을 대하던 추억 속 그 감성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감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바로 참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지역 행사들의 번성이다. 개중 단연 돋보이는 곳은 '달성 비슬산'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참꽃 문화제'라 이름이 붙여진 참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참꽃의 개화시기에 맞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 축제에는 올해로 벌써 21회째를 맞이했다. 비슬산 정상에 있는 참꽃 군락지는 봄이 오면, 그 시절 추억과 향수를 가득 담고 피어난다. 구슬땀 흘리며 도착한 해발 1,084m의 산 정상에 다다르면 푸른 하늘과 맞닿은 100만㎡의 광활한 평원에 펼쳐진 진분홍의 천상 화원을 연상케 하는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상을 벗어나 신선의 세계에 와 있는 착각마저 하게 만든다. 신선한 봄바람이 귓볼을 스치며 참꽃 향기를 전해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가족·친구들과 함께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비슬산의 봄은 행복한 분홍빛 기운으로 가득하다.  기획·편집부

참조 : 〈비슬산 참꽃 세미나-비슬산에 분포된 참꽃에 관한 학술·예술·관광〉

현풍향교 춘계 석전대제



조선시대 대표적 교육기관인 향교는 교육 뿐 아니라 공자와 성현들의 제사를 지내는 기관으로서 기능했다. 현풍향교는 달성군의 유일한 향교로, 조선 초기에 처음 건립 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며 불타 없어졌다. 전후 옛 교동에 새로이 지어진 현풍향교는 영조 34년(1758)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달성군에서는 향교의 정신을 보전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의미로 매년 '현풍향교 춘계 석전대제'를 치르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1일 현풍향교 대성전에서 김문오 군수를 비롯하여 지역유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석전대제를 개최했다. 이번 석전대제는 초헌관에 김문오 군수, 아헌관에 류상열 달성경찰서장, 종헌관에 손길수 유도회 농공읍지회장, 분헌관에 윤기윤 현풍향교 장의와 김원호 유도회 임원이 맡아 봉행하고, 김명동 현풍향교 감사가 진행순서를 낭독하는 집례를 맡아 석전대제를 거행했다.

석전대제는 진설(제사음식을 상에 차림), 전폐례(향을 피우고 제를 준비), 헌례(공자 등 오성에 잔을 올림), 분헌례(성현에 잔을 올림), 음복례(제수음식을 나눔), 망요례(축물과 예물을 태움)의 순서로 진행되며, 현풍향교에서는 대성전에서 각 문중의 유림들이 모여 공자를 비롯한 5성, 송조 4현, 동국 18현 등 옛 성현 27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석전대제를 지내고 있다.  기획·편집부



달성과 함께한 모든 순간

제6회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

2017. 9. 25. ~ 10. 6.

응모자격 전국민 누구나 가능

공모분야

- 비슬산, 주막촌, 대견사 및 달성의 관광자원 등
- 문화유적, 전통사찰 등 달성의 전통 문화
- 각종 축제, 재래시장 등 생동감 있는 모습이나 군민 생활상 등
- 풍경(관광자원, 문화유적 등)을 부각시키는 작품
- 달성군을 배경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찍은 사진(인물, 가족사진 등)

작품규격

- 일반 부문 : 컬러 및 흑백사진 11×14" (22×37cm)
디지털 사진인화 시 원본파일 긴변이 3,360픽셀 이상
- 스마트폰 부문 : 컬러 및 흑백사진(아이폰/안드로이드폰)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 설정을 고해상도(긴변이 2,000픽셀 이상) 설정 후 촬영한 사진으로 크기 1MB 이상 고화질 사진파일(jpg) 제출

출품요령&접수처

-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일반부문 : 우편 접수
(42910)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달성문화재단
- 스마트폰 부문 : 이메일 접수 / artinds@naver.com

시상내역

• 일반 부문

구 분	수 량	상금(원)
금 상	1	200만원
은 상	2	각 100만원
동 상	3	각 60만원
가 작	6	각 30만원
입 선	25	각 5만원

• 스마트폰 부문

구 분	수 량	상금(원)
금 상	1	50만원
은 상	2	각 30만원
동 상	2	각 20만원
가 작	5	각 10만원
입 선	5	각 3만원

▶ 문의전화 | 053.659.4283

▶ 자세한 요강은 달성문화재단(www.d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